

## UPASIKA PRAISED CONTENTS

- 02 발행인 칼럼 | 이기향  
생명력 일깨우는 역동적인 미르의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 04 불교와 여성 | 윤정로  
'이주민'과의 동행
- 06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 이영희  
스리랑카 사원, 마하위하라담마끼티 주지스님
- 09 108인 기획 인터뷰 | ه영자  
김해자 누비장
- 12 현장스케치 | 구윤임  
창립23주년 기념식과 제11차 108인 선정식
- 16 특별활동보고 | 김남선  
남인도 스리랑카여행
- 20 건강한 먹거리 이야기 | 최혜경  
시래기와 겨울방학 특선 닭튀김
- 22 사무국 소식
- 25 산하기관 센터 소식
- 29 회원 동정
- 30 재정동참 현황

## 우바이예찬

2024년 88호

[발행인] 이기향 [발행일] 2024년 1월 30일

[편집위원장] 형난옥

[편집위원] 김영희, 이영희, 조정숙

[편집디자인] 랄랄라 스튜디오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03047)서울시중로구자하문로30길20 1층

[전화] (02) 722-2101~2

[팩스] (0502) 722-2000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http://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http://www.wisdom2007.or.kr)

[이메일] [wisdom2007@daum.net](mailto:wisdom2007@daum.net)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는 여성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표지 사진]

### 인왕제색도에 자리잡은 불교여성개발원?

비 갠 후의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인왕제색도는 검체가 자신의 집터에서(현 경복궁) 바라본 인왕산 풍경을 그렸다고 전해옵니다. 이번 호에서 편집위원들은 본원이 인왕제색도 속의 어디쯤에 자리할까 추정해보았습니다.

회원 여러분! 불교여성개발원 108카페를 방문하셔서 테라스의 으뜸 차경인 인왕산을 즐겨보시길 권합니다.



## 생명력 일깨우는 역동적인 미르의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미르의 해가 밝았습니다.

동양에서는 미르(용)로 표현되는 우주의 생명력이 인류의 본성을 일깨우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던 2023년의 다양한 불사

돌이켜보면 지난해 개발원이 추구했던 많은 일들이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원만히 회향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 2022년 겨울, 청운동의 낡은 집에 새터를 마련했던 불교여성광장은 이제 산뜻한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회원 활동의 굳건한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불교여성광장의 모연 동참자 1020분들을 기리기 위해 기획했던 1, 2층의 '모연의 벽'은 '보살의 손길로 세상을 향해 붓다의 등불을 밝혀가리라'는 염원을 녹여낸 불사였습니다. 또한 23년 봄부터는 개발원의 로고와 심볼을 통합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이미지메이킹에 착수, 개발원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초여름에 열렸던 3000여 명 규모의 사카디타\_세계여성불자대회에서는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재가여성단체로서 개발원의 역량을 크게 과시한 바 있습니다. 6월과 9월, 개발원 산하기관 영(young) 108의 어린 자녀들과의 템플스테이는 역사상 최연소 어린이 템플스테이로 평가받음으로써 의미 있는 인재불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에는 서른네 분의 회원과 지인들이 본원의 고문이신 혜총스님을 지도법사로 인도-스리랑카 성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1박 13일 동안 가는 곳마다 스님의 정성스런 기도와 축원에 힘입어 불보살의 가피 가득한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우리의 정체성은 본성을 찾는 일에 매진할 때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금강경 새벽기도 600일을 회향하고, 700일을 입재하여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일 회향을 앞두고 기도 정진하는 귀한 인연에 많은 회원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 산하의 세 기구와 열 개의 센터 그리고 다섯 그룹의 활발한 활동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회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룹을 이끌어오신 단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변화의 씨앗, 11차 보주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

지난해 불교여성개발원에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제11차 여성불자 선정을 통해 신심과 능력이 출중한 분들과 새롭게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동행할 시간들이 사뭇 기대되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번에 선정된 11차 여성불자들의 특기할 점은 이십 대부터 칠십 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고 지구촌 여러 곳에서 뜨겁게 참여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중국, 홍콩, 영국에 거주 혹은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기에 우리의 국제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원 홈페이지와 소식지 '우바이예찬'도 변화를 꾀하는 중입니다.

### 변화를 향한 창조적 에너지의 결집 '불교르네상스'

불교여성개발원은 2000년 대한불교조계종의 딸로 태어나 2022년 재가여성단체로 홀로서기까지 지난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의 기금 모연 문화제를 2011년과 2017년에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동력으로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 온 끝에 현재는 여성광장 건립의 꿈을 거의 이루었습니다. '불교르네상스'란 색다른 발상은 '시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불교의 진리가 문득 재평가되어 중국에는 번영할 것'이라는 예지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집행부는 여성광장 건립의 꿈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 번 더 정신적, 신앙적 활력을 끌어모으고자 부심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르네상스를 맞이하려면 첫째, 불교문화 콘텐츠의 재해석으로 세계적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불사여야 하고 둘째는 선의 현대적 해석과 진화로 세계적인 정신수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라 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회원 가운데 이미 불교르네상스의 정신으로 불교적 콘텐츠를 재창조하고 이를 통해 본성을 찾는 일에 매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교르네상스를 계기로 한국 불교문화의 창조적 탈바꿈을 시도해 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벅찬 일입니다. 불교와 여성, 불교문화콘텐츠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기운을 모아 세계 불교문화 융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역사적인 불사가 될 것입니다. '불교르네상스 꿈III'의 성공적 개최를 뜨거운 마음으로 성원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공감대가 형성하는 에너지는 '불교르네상스의 꿈III'를 지피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 불사에 창조적 에너지로 한마음 이루어 주시길 발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 ‘이주민’과의 동행

2024년에 우리나라는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된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외국에서 이주해온 인구의 비율이 5%에 이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는 251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를 차지한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인구 규모로 8번째인 충청남도의 인구를 상당히 넘어서는 수준이다. 2022년 우리나라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이주민을 배우자로 맞고 있다. 이러한 소위 ‘다문화’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데 반해서 내국인 간의 결혼은 2.4% 감소하였으나, 향후 출생하는 다문화 아동과 인구의 비율도 증가할 것이다.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인 역사가 오래된 북미와 유럽, 소규모 도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인구 비중이 5%를 넘는 국가는 드물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라고 한다. 해외에서 대규모로 유입되는 이민은 1990년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으로 시작된, 우리에게 새롭고 또 급속히 일어난 변화이다.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 농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 없이는 운영 불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음식점과 호텔, 임업, 광업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허용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이렇듯 해외로부터의 이주민은 짧은 기간에 우리 사회에서 불가결한 구성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역할과 비중이 증가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외국 출신의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차원에서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이고 가시적인 조치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다.

이주민을 대하는 데 편견과 차별, 얽잡아보는 마음과 시선이 부지불식 중에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보자. 우리의 말씨부터 생각해보자. 원래 ‘다문화’라는 단어는 영어 multicultural, multicultural을 번역한 중립적인 용어였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편견을 품은 단어로 변질되었다. 최근에 다문화라는 용어 대신 출신 국가 구분 없는 ‘이주배경 주민’(약칭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주민’ 용어도 ‘다문화’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우리의 예법에서 중요한 존댓말 사용에서 이주민에 대해서는 결례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많은 이주민들이 흔히 당하는 반말과 욕설, 명령조의 말씨에 대해서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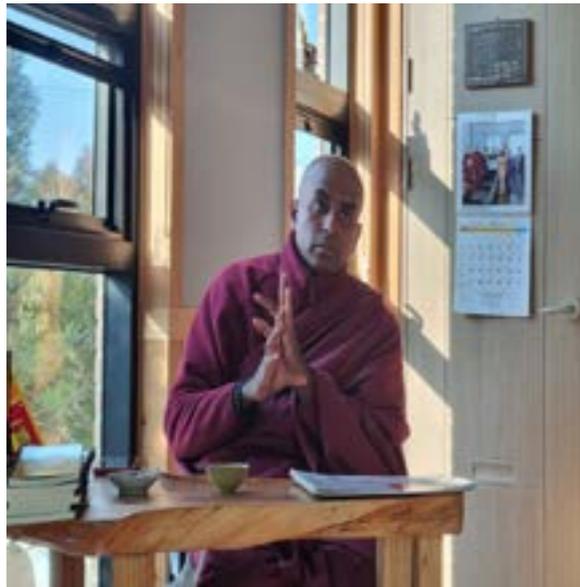
별과 모욕을 느낀다고 한다.

이주민은 우리가 원하면 아무 때나 원하는 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불러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주민을 보내준 나라들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해외로 나가 정착하려는 인력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북미와 유럽, 일본 등은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수한 이주민은 여러 나라가 경쟁에 뛰어들어 소중한 자원이다.

필자는 이주민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어 건강과 보육, 교육의 혜택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며,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이주민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소중히 여겨야 할 인적 자원이다. 현재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약 13,000명 정도의 아동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3조에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의 영유아 30,000여명은 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90% 이상의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청소년들의 소망과는 달리, 이들은 학교생활과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현재 부딪치고 있는 차별을 없애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키우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종교 활동은 이주민의 정착과 통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국제결혼의 2/3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이며,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태국 순으로 불교 문화권 여성이 많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일찍이 2008년부터 다문화가정지원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2009년 설립된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은 2023년에 ‘행복가정센터’로 이름을 바꿔 결혼이주 여성분자들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 불자 이주민들이 불교 신앙을 이어가고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는데 디딤돌이 되어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주 여성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도반’으로 받아들이고, 수행과 깨달음의 길에서 동행하며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여성 불자 이주민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도반들의 불심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

## 스리랑카 사원, 마하위하라 담마끼티 주지스님



올해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는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되었다.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 건설업, 중소기업은 이미 외국인 없이는 지탱할 수 없고 대도시의 서비스업, 지방 농가, 대학 교육현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약 43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미 작년(2023)에 5.7%를 넘어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한 것이라 한다.

이런 시기에 마침하여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 위치한 스리랑카 사원, 마하위하라(Mahaviharaya)의 담마끼티(法稱, Ven. Dhammakitti, Ph.D)스님을 취재하게 되었다. 넓은 농지 가운데 위치한 사원은 마치 스리랑카의 한

적한 시골에 지어진 듯 주변과 잘 어울렸고 파란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이국적이지만 낯설지 않았다. 높은 황금색 기둥으로 둘러싸인 법당은 남방불교의 사원 모습 그대로였으나 법당 안 우리 전통사찰의 삼존불 대신 석가모니부처님과 제자인 사리불과 목건련을 협시로 모신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법당 입구 쪽에 하얀 칠을 한 우리 목불도 모셔져 있었는데 폐기물로 처리될 뻔한 것을 스리랑카 노동자 분이 '불상을 그럴 수는 없다'고 쓰레기장에서 구해와 법당 안에 함께 모신 것이라 한다. 함께 계신 모습이 정답고 하얀 목불 상호가 그지없이 평화롭다.

마하위하라 사원의 주지인 담마끼티스님은 7살에 출가해 10살에 계를 받았다. 스님인 큰아버지가 어머니께 출산 선물을 주러 와서 '이 아기는 스님이 될거다' 했는데 정말 7살 때 종종 놀러 가곤 했던 사찰에서 그냥 살겠다고 했던단다. 귀염둥이 막내여서 엄마가 결사반대하자 한밤중에 나무 위로 도망쳐 사찰에서 살게 해달라고 떼를 써 결국 허락을 얻어 어린 나이부터 사찰에서 살게 되었고 10살에 비구계를 받았다. 대학 시절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2년 공부했는데 당시에 한국어를 2년이나 공부한 사람이 딱 혼자뿐이어서 4학년 때 한국의 선원에서 산스크리트어

와 팔리어를 가르칠 사람을 찾는다는 공지가 계기가 되어 한 달 반 예정으로 한국에 처음 오시게 되었다. 그것이 대학 4년 여름 방학 때의 일이다. 한국과의 인연은 '배우는 사람이 없어 기초부터 쉽게 배울 수 있겠구나' 가볍게 생각해 선택한 제2 외국어 수강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20년째 한국에서 살며 스리랑카인들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 주는 무거운 인연으로 발전하였다. 오직 모를 뿐인 신비한 삶의 행로를 다시 생각해 된다. 선원에서 한 달 반 팔리어를 가르친 후, 한국 스님들이 맡은 안 통했지만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안암동의 개운사로 옮겼다가 범주사로 옮겨 한국 절에서 2011년까지 10년을 살았다. 그동안 장학금을 받아 불교학 철학박사 학위도 받고 한국 절에서 한국 스님으로 살았다. 이후 2014년 무렵 평택에 가건물을 짓고 마하위하라 스리랑카 사원 시작해서 이곳 아산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의 사원의 모습을 하나씩 갖추어 나갔다. 현재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평택 유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위파사나명상을 지도하고 계신다.

마하위하라 사원과 담마끼티 스님은 재한 스리랑카인들의 의지처이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토요일에 절에 오기도 하지만 일요일 하루 쉬는 경우도 많아 일요일법회는 새벽 5시부터 점심이 지나서까지 여러 차례 지역별로 나눠 이어지고 있었다. 주중에는 한국분들이 절을 찾는다고 한다. 일요 점심공양은 스리랑카 음식으로 마련하여 고향 음식을 즐기고 스님께 상담과 인사를 드리러 오고 가는 모습이였다. 담마끼티스님은 절에 오지 못하는 스리랑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회'를 꾸준히 해왔는데, 올 12월 말에도 전남 완도와 거제도도 출장 법회를 떠난다고 했다. 법회 장소는 그때그때 편의를 보아주시는 기존의 한국 절을 빌려 법회를 하는데 예전보다 한국 스님과 불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고 한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공장이 아닌 양어장이나 바다와 같은 현장에서 20일, 30일 연속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살핌과 정서적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한다.

현재 재한 스리랑카인은 2만 5천 명 정도로, 스리랑카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K-컬처, K-팝으로 인기가 많고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는 나라로 여겨지는데다 국가에서 국가로 취업을 보내는 형태로 입국하기 때문에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많이 입국하는데 한국이든 스리랑카든 젊은이는 똑같이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고 유튜브하고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서, 일하러 왔지만 일하고 돈만 벌기보다 사진 찍어 올리고 놀고 싶어하는 등 현장의 고용주와 갈등을 빚고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의 고용주 역시 세대 차이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돈 벌려고 와서 왜 일을 안 하는지 불만이고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밤 10시, 12시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 어린 노동자들의 오해와 불만을 사고 서로 소통도 어렵다. 그래서 양쪽의 사정을 잘 아는 스님이 가운데서 상담과 중재를 하며 양쪽을 다독이며 오해를 풀어 주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의 불통과 불만은 작업 생산성뿐 아니라 사고로도 직결될 수 있어 상호 이해와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스리랑카인이면서 오랜 한국 생활로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스님과 같은 중재자가 절실한 이유이다.



요즘 담마끼티스님은 이주민 아이들의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돕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앞으로 20년은 장학금 혜택을 받는 아이들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자국민과 부딪히며 실질적인 상담과 도움을 주는 각 나라 절에는 종교기관이라는 이유로 아무 지원이 없고 이주민들이 잘 가지 않는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정부 보조금을 독식하는 비합리적인 일들이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잘 아는 이주민 스님들끼리 자발적으로 다문화종교모임을 만들었는데 경기도, 서울 등지의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스님들이 모여 교류를 하고 공통의 문제를 풀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한다. 일회성의 이벤트 행사보다 이주민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한 달에 삼만 원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준다가나 한국의 출산 비용이 매우 비싸니 이주민 가정의 출산 시 출산준비물 세트를 선물한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에서 실제로 그것보다 엄청 많은 돈을 쓰는데 이주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정말 사람과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일회성 행사 말고 서로에게 실질적 도움과 마음을 담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에 100개나 되는 이주민노동자센터가 있는데 정말 다 필요한 곳일까요? 한국인의 귀한 세금이 이주민의 이름으로 이주민과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안 되죠. 한국은 희망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잘 해내려는 의지가 강하고 아이디어도 넘쳐나는 나라예요. 이렇게 발전하고 바뀐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요즘 스리랑카뿐 아니라 외국 젊은이들이 한국문화에 반해 한복 입고 한국에서 결혼하는 이벤트를 하고 싶어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한국 절에서 한복 입고 결혼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기독교 쪽에서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만 우리 불교국가 젊은이들은 우리 불자들이 K-웨딩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 절에서 한복을 입고 예식을 올리면 얼마나 사진이 멋지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나라별로 모아서 한다든지 하면 한국 절은 경치도 분위기도 좋아서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사진들이 나올 거고 그 사진들은 실시간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통해 세계로 퍼지겠죠. "스님은 유창한 한국어 달변으로 인터뷰 2시간을 꽉 채웠으나 지면 사정상 정말 일부만 소개되어 죄송한 마음이다. "스님. 언제 저희 개발원에 한 번 오셔서 이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특강 한번 해 주십시오~"

## 누비는 정신문화- 누비장 김해자 선생님

국가무형문화유산 제107호 누비장, 2차 108인 김해자 선생님은 경주에 사신다. 필자는 이른 새벽 KTX를 타고 경주로 오신 본지 편집위원장과 동행하여 선생님 댁에 당도하니 '이 누추한 곳을 찾아주셨냐'며 버선발로 맞이하시며 환대해 주셨다. 선생님은 먼 길 온 필자 일행이 돌아갈 길을 배려하여 서둘러 말씀을 꺼내셨다.

### 누비는 정신문화

누비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정신문화입니다. 누빈다는 것은 우주 공간 안에 모든 먼지 같은 티끌들을 모아서 하나로 엮는다는 거죠. 잘 정리 되어있는 산골의 밭고랑을 보면, 똑바른 게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워요. 것처럼 천을 직선으로 정리하는 단순한 작업으로 계속 이어 간다는 것은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정신세계가 투철하고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 하다 싫증 내고 적응을 못해 답답해서 놔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난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것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유물 재현을 할 때는 반드시 손으로 누비지만, 상업화를 위해서 가끔 재봉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회원들이 처음 배울 때는 재봉틀을 선호하지만 차츰 손으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수행이 되니까 사람이 안정되고 관상과 성품마저 바뀌게 되는 것을 봤어요.



### 누비와의 인연은 석주선 선생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전통 손누비는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만의 고유 재봉법입니다. 손누비의 그 정교함과 작품성자수를 능가하는 예술품으로 평가받기 충분한데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워요. 돌아가신 석주선 선생님이 유물 제114



호 액주름포 재현을 부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완성품을 보시고는 마냥 좋아서 입어보고 이리 돌고 저리 돌며 천진스럽게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이후 사명감을 가지고 유물 재현을 하게 되어, 지금은 어떤 유물도 모두 재현 할 수 있습니다.

맥이 끊어져 손대지 못하던 유물들을 한점한점 재현하다 보니 이것을 대견해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보유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제가 보유자가 되었어요.

복식을 전공한 것도 아니면서 사양길에 있는 한복을 짓다 보니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누비를 현대화해서 밉크코트를 대신하게 하거나 생활 패션으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밥을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밉크는 짐승의 털이니까 살생도 막을 수 있고 누비로 코트를 만들어내면 정말 멋진 옷이 되겠다 싶었는데, 여의치 않았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유명 한복 장인들에게 주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던 중에 정정환선생님 소개를 받았어요. 이 어른이 작품을 보시더니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아직 한 번도 출품하지 않았느냐'며 전승공예대전에 출품을 권하셨습니다. 1992년 17회 전승공예 대전에 유물 114호 액주름포 재현한 것과 조선시대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동방아 이렇게 다섯 점을 출품했어요. 출품하려니까 염색을 하기 위해 성파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의 도움으로 쪽물 염색을 했습니다. 이 염색한 원단으로 5점의 작품을 재현하여, 출품한 것 중에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의 뛰어난 작품이지만 작가의 사회활동이 미미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크므로 더 많은 활동을 하여 한 번 더 상을 받을 기회를 주고자 했다는 주최 측의 설명이 있었지요.

국무총리상을 받고 나니까 문화재청 예용혜 선생이 문화재 지정을 위해 사람을 내려보내 조사를 시작했어요. 누비라는 게 유물 출토품은 많아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맥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복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누비를 하다 보니 이것은 기능이 아닌 한국 최고의 정신문화니 내가 필요하면 종목지정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전국에 공고를 했지만, 하는 이가 없어 제가 되었습니다.



### 누비와 명상을 접목시키고 싶다

집안은 불교였으나 어머니께서는 시집오시기 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세례를 받았고 이후 견진 성사를 받아야 될 시기에 종교에 대한 갈등이 생겨 방황하다가 제주도 선돌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선돌이라는 곳은 6대 목사가 들어 미신 타파를 하던 그 역사적인 곳이지만 산이 좋아서 그곳에 갔다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아주 엄청난 기운에 의해 놀랐는데 무의식에서 '관세음보살' 주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원인인가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나 불교를 찾게 되었고, 이후 선지식을 만나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사회를 적응하다 보니 불교에 깊이 빠져들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요. 열심히 전국을 대상으로 손누비 문화를 전수한지 어언 40년 가까운 세월엔 문화재청 이수 제자가 30명이고, 문화원 회원으로 활동하는 제자가 50명 정도입니다. 그동안은 사라질 뻔한 누비의 전승도 보완이 된 거 같고, 이제 저도 2차 108인의 한 사람으로 불자들에게 누비를 통한 수행의 방편으로, 명상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손누비 수업재료는 간단한 패키지로 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제작은 수강생들이 하지 않고 누비만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초적인 것 익히고 나면 회원끼리 서로 소통하고 상의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여 누비와 명상을 접목시켜 실행하는 불자들이 많아져서 생활불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중에 소찬이나 들자시며 정성껏 차려주신 점심은 선생님의 바느질만큼이나 정갈하고 맛깔나서 먼 길 간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솜씨가 가득한 누비 옷장의 옷들이 날개를 달고 선생님의 소망대로 밉크코트를 대체할 그 날을 기대해 본다. 





##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3주년 기념식과 제11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

지난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기향) 창립 23주년 기념식과 제11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을 열고, 대표 여성불자단체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인류 평화와 복지증진, 생태계 보존을 위해 2000년 11월 27일 창립되어 10개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불자108인 선정은 불교여성개발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03년부터 귀감이 되는 불교여성 지도자의 발굴과 회원 상호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이바지하고, 여성 전문인의 대사회적 공헌도를 널리 알림으로써 여성 불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해왔으며, 올해 11차로 1,145명에 달하는 재가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행사에는 금상선사 회주 일법스님, 향운사 주지 지상스님, 참나 선원 무관스님, 리영자 고문, 그리고 이인자, 김애주, 정경연, 노숙령, 김외숙, 김선옥 역대 원장들, 주한네팔 불자 초대회장이신 케이피 시토올라, 각 차수 108인회 회원 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불교여성개발원 위즈덤합창단(단장 황경자)의 단원 10명과 총지종에서 찬조출연한 8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부 창립 기념식과 제8회 지혜장학금 전달식, 2부 제11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 3부 축하공연순으로 진행되었다.

### 1부 | 창립 23주년 기념식과 제8회 지혜 장학금 전달식

이현정(제2차 108인)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참석자들이 함께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시작되었다. 먼저 큰 행사를 준비해 온 불교여성개발원 이기향 원장의 인사말을 들었다. 이기향 원장은 참석자들에게 108이라는 숫자에 대해, “숫자 ‘108’에는 깨달음을 가로막는 번뇌의 소멸을 위해 정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하면서, “여성불자108인 한 분 한 분은 이 시대의 보석과도 같은 샤카디타(부처의 딸)”이며 “지난 23년간 축



적해은 개발원의 역량이 발휘되고 여성불자108인을 비롯한 회원들의 우수성과 주인의식,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결집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며 “선정된 여성불자108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2,500년 전 붓다가 밝히신 지혜의 빛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가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향운사 주지 지상 스님의 격려사를 들었다. 스님은 불교계 환경은 날이 갈수록 승려는 물론 승려의 수도 감소하고 있는 불교계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여성불자108인 선정은 바라밀의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바라밀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며 “여성불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소중한 원력과 공덕이 모여서 오늘의 소중한 인연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하셨다. 이어진 축사에서 신명 한국여성의정 4대 상임대표(2차 여성불자108인)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추구하는 사명으로 교단을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의 중심이 여성불자108인”이라며 “오늘 선정된 여러분 경험과 지혜, 역량을 발휘하여 불교여성개발원의 발전에 앞장서 주십시오. 다행스럽게도 20년 가까이 소망하던 불교여성개발원의 보금자리가 지난 2월 청운동에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함께 손잡고 노력합시다”고 당부했다.



이날 불교여성개발원은 창립 기념에 맞춰 지혜장학회 제8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6명에게 지혜장학금 각 1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장학사업은 오래전부터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는데,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지혜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개최되는 바자 수익금과 회원들의 후원금을 모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이하 기도 동참자들이 매일 새벽 5시에 하는 기도를 시작으로 일일 1천원씩 모아 지혜장학금에 후원하고 있으며, 정진회 지혜아카데미 대표가 지정기탁금으로 100만원을 회사하여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 2부 | 제11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

드디어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제11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이 봉행되었다. 이날 선정된 여성불자들은 남다른 기쁨에 젖어있었고 지인들은 꽃다발을 들고와 기쁨을 함께 했다. 먼저 정대련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의 제11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사업 경과보고가 있었다. 정 부원장은, “선정과정은 매우 엄격했고,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경과보고가 끝나자 여성불자108인회 남동현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남동현 회장은 제11차 108인 후배들을 맞이하는 환영사에서 “불교여성개발원은 2022년을 기점으로 ‘청운동 희망의 시대’를 맞았고, 여성불자 108인회는 불교여성개발원 산하의 가장 큰 규모의 핵심조직이 되었으며 자율성과 정체성을 가진 범불교단체로서 보기 드물게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치하하였다. 이어서, “여성불자108인회와 불교여성개발원은 여러 회

원님들을 상호 연결, 교류하는 영역을 구축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불자108인회는 부처님과과의 만남과 신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친목을 확대하는 자리로, 또 각자의 경험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여성불자108인회의 역할에 대해, "활기 넘치는 젊은 불자에서 확고한 신념으로 자비 나눔과 봉사활동 등의 신행력이 높으신 분들. 서울에서 제주도, 중국의 상해, 미국의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는 젊고 글로벌한 조직"이며 우리가 탄탄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 발전하고, 살아 움직이는 네트워크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서로 개개인간에 친밀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남 회장의 힘찬 어조의 환영사로 장내는 활기차고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선정증 수여식을 하기 전 제11차 여성불자108인의 면모를 소개하는 짧지만 감동적인 영상이 선정식을 더욱 빛내 주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11번째 여성불자108인들을 소개하고 선정증을 수여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여성불자108인은 주요 일간지와 불교계 신문 등 최근 2년간 언론에 보도된 여성 불자 자료와 불교여성성개발원 임원과 이미 선정된 108인 등의 추천을 받은 120명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각 분야로 나누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08인은 경제 7명, 교계단체 6명, 교육연구 16명, 문화예술 23명, 법률 1명, 보건의료 5명, 사회단체 9명, 언론출판 4명, 자원봉사 13명, 정치행정 4명, 포교신행 20명이다. 이날 선정식에는 총 108명 중 67명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인원이 많은 관계로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경제, 교계단체, 교육연구 분야 순으로 수여하였다. 경제분야에서 108인으로 선정된 강경자 IF 페이스 디자인 원장을 시작으로 선정증이 수여되었으며, 기념품인 텀블러와 화사한 해바라기꽃으로 축하해 주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기향 원장과 여성불자108인회 남동현 회장이 선정증과 축하와 환영의 마음을 담은 해바라기꽃을 전달했다. 제11차 여성불자108인을 대표로 2명이 소감을 발표했는데, 먼저 구윤임 국제포교사는, "11차를 포함한 선배 108인들이 각 분야에 전문성을 이룬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각자의 욕망을 억제하고 비우면 마음이 고요하게 되어 지혜가 열리며,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희망과 행복의 마음을 나누는 불교여성개발원이 될 것"이라며 "여성불자 108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불교여성개발원의 발전에 참여하겠다"는 말로 선정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윤희진 민족사 기획 디자이너는, "불교여성개발원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10여 년 전, '영(Young)108'에서부터였다"는 초기인연을 밝히며, "이제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되어 다시 마음껏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역사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



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여러 분야에 계시는 여성불자108인의 재능을 모아 재미있는 불교, 열린 불교를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3부 | 축하공연

이번 축하 무대는 불교 여성개발원 이기향 원장이 기획한 패션·무용 퍼포먼스 '동행의 기쁨'이었다. 이기향 원장은 "불교적 영감이 충만한 패션아트가 에너지 가득한 무용과 엮어내는 패션·무용 퍼포먼스로 기존의 통념을 깨는 전통 주제의 현대적 해석으로 불·교·르·네·상·스를 리드하고자 기획하였다. 영롱한 보주들의 미묘한 몸짓은 여성불자 108인에게 내재된 불성을 수희 찬탄하며, 오늘의 귀한 만남을 통해 동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공연의 성격을 설명했다.



공연의 마무리는 참석자들과 어우러지는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는데, 이날의 행사가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흥을 돋우어준 장면을 연출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기념촬영이 있었는데, 축하공연으로 행사를 빛내준 모델들과 제11차 여성불자108인 등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며 '동행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불교여성개발원측은 참석한 11차 회원들을 위한 기념품으로 텀블러와 베이글 180세트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란 부원장은 다포 150장을, 정진희 지혜아카데미 대표는 선정식에 참석한 제11차 108인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아 해바라기꽃 75송이를 준비했다. 1차에서 10차에 이르는 선배 108인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다.

### 마무리

마지막으로 불교여성개발원과 여성불자108인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불교여성개발원과 여성불자108인회가 구축한 회원들간의 상호 연결, 교류 영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다. 현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 수행, 봉사를 위한 워크숍과 바자회, 문화사업, 수행과 명상, 불교연구와 상담, 강좌와 독서, 사찰순례와 역사문화 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선정된 전문가들이 불교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선배들의 각고의 희생과 노력으로 일군 청운동 청사를 중심으로 여성불자108인회 회원들 모두 자신의 전문분야와 역량에 맞는 기획사업과 활동을 힘차게 진행하여, 스스로 불교 르네상스의 완성을 위한 교량이 되었으면 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했다. 



## 혜충스님과 함께하는 남인도·스리랑카 불교 성지 순례

귀국 다음 날 새벽 불단에 정화수 올리고 불을 켜고 삼배를 올렸다.

불교여성개발원 주최로 11박 13일 혜충스님과 함께 다녀온 스리랑카 남인도 불교성지순례단 모두와 함께한다고 관상했다. 순례 내내 마음 다해 소리 내어 외던 삼귀의를 하면서다.

한 나라에서 순례길 동행하고, 한 집에서 또 한방에서 잔 인연들, 과거에 나의 부모였을 수도 형제였을 수도 있기에 현재의 부모 형제자매 대하듯 사랑하고 가꾸어야 할 인연들, 앞으로 매일 새벽 예불을 마음으로 같이 할 것이다.

12월 7일, 5시에 일어나 청평에서 6시 공항버스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 가이드 포함, 34명의 순례단을 만나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스리랑카행 직항이 없어 뉴델리 인디라 간디 공항에서 환승했다. 첫 순례지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로 가기 위해서다. 13시간 걸렸다. 순간순간 바뀌는 구름 모습이 무상을 설치하고 구름 위의 빛나는 태양은 항상한 본 성품을 보여 주는 듯했다.

콜롬보 공항에 도착하니 공항에 모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와 현지 가이드가 꽃목걸이로 환영해주었다. 호텔로 향하며 혜충 스님께서 새벽 예불 안내와 축원을 해주셨다.

시방삼세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새삼 깊이 다가왔다. 이 내용을 꿰뚫으면 깨달음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았다.

순례 첫날 12월 8일, 새벽에 호텔에 들었으나 눈을 붙이지 못하고 10시에 호텔을 출발하여 순례에 나섰다. 가는 길에 콜롬보에 대한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다.



“인구 120만, 상업무역의 중심지로 향신료와 보석향이 있었다. 포르투갈의 침입, 네덜란드 점령 그 후 영국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대도시가 되었고 한때는 영국의 병참기지가 되기도 했다. 한국인이 1,500명 거주, 현대, 기아 공장도 진출, 한식당도 두 곳 있고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러 온다.”



잠시 갈라 페이스 바닷가에 내려 여독을 해풍에 풀어 놓고 기분 좋게 첫 순례지로 향했다

켈라니아 사원 부처님 재세기 스리랑카를 세 번 방문하셨다. 두 번은 법을 설하시고 한번은 족적을 남기셨는데 켈라니아 사원은 목욕을 하시고 법을 설한 곳이다.

설산을 배경으로 좌정하신 부처님 전에 눈물의 예불을 올리는 것으로 스리랑카 불교 성지 순례를 시작했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곳은 하얀 탑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미힌탈레 아쇼카왕의 아들 마힌다 장로가 뒷사 왕에게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곳이기도 하다. 신발을 벗고 비 내리는 미끄러운 길을 올라 마힌다 장로 사리탑에 예 올리고 다시 계단을 올랐다. 부처님 머리카락 사리탑 참배를 위해서다. 목탁을 치면서 탑돌이를 했다. 와불을 모신 법당에서는 예불도 올렸다. 왕과 귀족, 하늘의 천신과 제자들이 지극히 예를 표하는 벽화가 화려했다.

스리랑카 최초의 사원 이수루무니아 사원 참배를 위해 고도 아누라다푸라로 이동했다. 저수지 옆에 바위를 파내 지은 것으로 부처님 좌상을 모셨다. 스리랑카 최초의 절인 썸이다. 저수지 옆에는 후에 지은 법당으로 쉬고 있는 부처님 와상을 모셨다. 박물관에 들러 왕궁에서 나온 조각을 보며 사리야 왕자와 그의 연인 마라의 사랑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루완웰리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리수가 있는 사원이다. 부다가야에서 모셔온 것이다. 신발을 벗고 몸수색을 거쳐 사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쇼카왕의 딸, 상가미티 스님이 보리수를 왕에게 전하는 불화가 이 절의 유래를 말해주었다. 수령 2000년인데도 세월의 티를 내지 않고 잎이 푸르고 가지가 가늘어 황금 지지대로 받쳐주었다. 모래가 깔린 맨땅에 극진히 절하는 불자들의 모습이 가슴 뭉클했다.

갈비하라 쿼드랭글에서 4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화강암 절벽에서 세 분의 부처상을 조성했다. 중앙 석굴 부처님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높이 6.7미터 선정인을 한 부처님, 왼쪽에는 열반상이 자리하고 그 머리맡에 부처님의 열반에 슬퍼하는 아난존자의 입상이 있다. 국난이 있을 때 불상이 눈물을 보였다고도 한다. 이미 석양이 붉게 타는 늦은 시간에도 중앙 석불 앞에 좌정하여 예불을 올렸다. 불보살님, 부처님의 제자, 선지식의 가피가 임하는 듯했다.

세계 10대 불가사의 시기라야 순례 일정에 없는 곳이지만 순례자들의 청에 의해 아침 일찍 순례에 나섰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카사파 왕이 동생의 보복이 두려워 바위산에 세운 왕궁 유적지이다. 원래 스님들의 수행터인데 쫓아내고 왕궁을 지어 목숨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사가 있는 곳이다. 비를 맞으면서 오른 바위산 왕궁터, 무지개가 뜨고 구름이 주변 산과 어울려 멋진 풍경을 자아내 다들 기뻐했다. 수행하기 딱 좋은 터전인 것 같았다.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쉬어질 것만 같았다.

스리랑카 최대의 석굴사원 담블라 180미터 바위산 중턱 동굴 다섯 곳에 불상과 불화가 빼곡하다. 한 동굴에 50개



가 넘는 와상, 입상, 좌상, 다양한 수인의 불보살상과 불탑을 모신 곳도 있다. 해충스님은 마음을 다해 예불을 하고 순례자들에게 가피를 축원했다. 석굴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와불을 모셨는데 이는 평화를 갈망하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위대한 불사를 가능하게 한 것 같았다.



불치사 스리랑카 제2의 도시, 캔디에 있다. 동양 최대의 식물원을 방문해서 노독을 풀어놓고 몸단장을 했다. 상하 하얀 옷을 입어야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얀 하의가 없는 사람은 하얀 치마를 5불에 사서 입고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모신 불치사 참배에 나섰다. 불치사리는 스리랑카 왕권의 상징으로 생각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천도할 때마다 이운해서 이곳 캔디까지 오게 된 것이다. 탑 모양의 보석으로 장식된 금으로 된 상자에 모셨다. 7차 김용숙님은 불치가 한국에 왔을 때 감동으로 눈물이 났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큰 탓인지 답답했다. 2층에 있는 사리를 친견하고 1층에서 예불을 올렸다.

### 남인도 달라이라마 존자 망명지, 문드곳

콜롬보에서 인도 벵갈로르 공항에 도착해서 환승대기하다 후블리 공항에 도착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문드곳에 도착했으니 종일 이동했다. 부산 광성사 주지 스님인 소남 스님이 방장으로 계신 라피사원에 짐을 풀었다. 라피사원 소속 스님은 180명이다. 이곳 스님들의 공부 과정은 20년이라고 한다. 5시 30분에 일어나 밤 9시, 11시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공부한다. 문드곳에 큰 사원이 7곳이고 티베트의 4대 종파가 다 있다. 3대 교육도량으로는 뒤퐁 사원, 가덴 사원, 세라 사원인데 스님은 8천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세라 사원은 참배하지 못하고 주로 뒤퐁 사원과 가덴 사원을 참배하면서 예불을 올리고 보시를 했다. 린포체념으로 부터 삼귀의를 받고 팔만대장경을 다섯 번 독송한 금강경의 대가이신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구전을 전수 받기도 했다.

뒤퐁 승가 대학에서 열리는 대론장은 대단했다. 어떤 이는 감동 받아 흐느끼기도 했다. 공부한 것을 자비와 지혜의 마음으로 공개 토론하고 불법을 익혀가는 모습 속에서 불교의 든든한 미래를 본 것이다.

라피 사원 사미승들이 온몸으로 외는 경전 암송 모습도 가슴 뭉클하다고 고백하는 이도 있었다. 스님들의 장엄한 예불 소리는 그대로 마음을 정화하는 감동을 선사했다. 이에 감동 받아 모든 스님께 대중공양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이 결사를 조직하기도 했다. 법당의 불이 오래오래 켜지기를, 불법이 널리 밝게 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 '법등명 10년 결사'를 한 것이다. 33명 순례자 중 12명이 매달 만 원씩 10년 자동 이체해서 모은 것을 일 년 정기 적금을 들기로 했다. 이것을 찾아 매년 소남 스님을 통해 라피 사원 법당 일년 전기세를 십 년 동안 보조하기로 했다. 법당 전기세가 한 달에 십만 원이라 했다.

엘로라 석굴 사원 후블리에서 푸네행 13시간 야간열차를 탔다. 푸네 역에 내려 아우랑가바드에 있는 호텔에 짐을

풀고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 참배에 나섰다. 불교, 브라만교, 자이나교가 섞여 있는 고대 인도의 관용의 정신을 잘 나타낸다는 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정한 기준이라 한다. 우리는 1굴에서 12굴인 불교 석굴을 빠짐없이 참배했다. 석굴마다 모셔진 불상과 돌기둥, 장엄한 강



당, 승방, 사원을 절벽을 쪼아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신의 숨씨라고 할 수밖에 없는 유적지 모습에 말을 잃었다. 가장 아름다운 10번 굴에서 마음 모아 예불을 올렸다. 구경거리가 아니라 불상에 깃든 법의 기운이, 찾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도하기도 했다. 16번 석굴은 힌두교 사원인데 사람의 손길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불가사의한 모습이었다. 이 정도의 정성이면 신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머물 것만 같았다.

아잔타 석굴 사원 숙소인 아우랑가바드에서 100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두 시간을 달려 도착했다. 세계문화유산이다. 호랑이 사냥을 나왔던 영국 장교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천 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부처님의 전생담, 부처님과 관련된 일화, 설화를 그린 벽화 천장화가 천년의 세월을 간직했다. 특히 연꽃을 든 연화수보살상이 인기 있었다. 석굴에 법당, 불탑이 있어 예불을 드리고 인도 학생들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스리랑카 곳곳 순례지와 엘로라, 아잔타에서 많은 학생과 성인들을 만났는데 다들 친근하게 다가왔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 같았다. 특히 스리랑카는 국가부도 상태라 국민이 불안할 것 같았는데 성지에서 만난 이들은 한결같이 편하고 친근 친절하고 밝았다. 불심의 덕분인가 싶기도 했다. 아잔타에서 돌아와 열차편으로 보팔로 이동했다. 6시간 가량 열차를 탔다. 기대가 많던 성지, 산치대탑을 가기 위해서다.

산치대탑 교통의 불편을 감수하고 온 순례지다. 사진으로만 보던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곳이다. 그 옆에는 존경하는 사리불, 목건련 탑도 있다. 수많은 건물터와 봉헌 탑이 넓은 지역에 분포했다. 과일을 마련해서 공양상을 차리고 예불을 올렸다. 한 시간 반이 넘게 지극정성을 다한 예불이었다. 사리탑에서 부처님의 황금색 가피가 순례자들에게 스미는 것을 관상하면서 마음 모아 절을 하기도 했다. 시간에 쫓겨도 박물관은 들렀지만 사리불과 목건련 사리를 모신 경내 사원을 들리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 뉴델리의 악샤르담이 마지막 순례지였으나 비행기 시간이 변경되



어 보팔에 있는 인도 중부 최대 회교 사원 방문이 마지막 순례지가 되었다. 보팔에서 뉴델리 공항으로 가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 감사했다. 부처님의 가피가, 비행기에서 본 일출의 황금빛처럼 순례자들에게 스미는 것을 관상했다. 다들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가지게 되길 기도했다. 🙏



## 시래기와 겨울방학 특선 닭튀김

### 시래기

모처럼 한가하고 여유로운 시간 김장 때 걸어 두었던 무청 시래기를 푹 삶아 한 웅큼은 시래기 밥을 한 웅큼은 멸치와 들기름으로 볶아 시래기지짐이, 한 웅큼은 시래깃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시래기는 그 효능을 손에 꼽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요즘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삶아 바로 조리할 수 있게 포장된 제품도 다양하고 가성비가 높다. 시래기로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풍성한 겨울 밥상을 꾸며 보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 ① 시래기 밥은 적당히 썬 시래기를 들기름을 넣어 조물조물하여 밥 지을 때 위에 얹어 고실고실한 시래기 밥을 하여 갖은 양념한 국간장으로 비비면 겨울철 최적 한 끼 밥상이 됩니다.
- ② 시래기 지짐은 들기름과 멸치를 시래기와 같이 볶아 물을 자작하게 넣고 시래기가 푹 무르도록 중불로 끓여서 된장으로 간을 하여 드시면 됩니다.
- ③ 시래깃국은 누구나 즐겨 먹는 국이다. 2년 전 세상 뜨신 친정어머니께서는 종종 썬 시래기를 된장과 소량의 밀가루(식성에 따라 들깨가루도 좋음)를 넣고 주물러 채수를 넣어 끓여 주셨는데 조금 걸쭉하면서 더 먹음직스러운 시래깃국이 완성됩니다.
- ④ 불린 쌀을 들기름으로 볶은 후 멸치와 시래기를 넣고 물을 밥 지을 때의 4~5배 넣고 끓인 후 된장으로 간을 하면 아침식사로 훌륭한 시래기죽이 완성됩니다.



### 무청 시래기 효능

1. 뼈 건강(골다공증 같은 뼈질환 예방)
2. 혈관 질환 예방(동맥경화 예방과 혈관 내 노폐물 배출)
3. 변비 개선(장기능과 장건강 증진에 도움)
4. 빈혈 개선(무우의 4배 철분이 포함되어 빈혈 개선과 예방)
5. 항암작용(암 예방과 암세포 증식과 전이 억제작용)
6. 노화 방지(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
7. 눈 건강(풍부한 비타민A 성분이 시력보호와 눈의 피로 억제)
8. 피부 미용(피부 노화 방지와 주름 개선에 효능)

### 닭튀김

#### 재료

무항생제 닭 한 마리 약 1kg

마늘, 생강청, 매실청, 진간장 각 20g, 후추가루, 카레가루, 소금, 맛샘 적당량, 녹말가루

- ① 손질한 닭에 준비한 양념을 모두 넣고 섞어서 몇 시간 냉장고에 둡니다.
- ② 양념이 밴 닭에 녹말가루를 골고루 묻혀 닭이 수분을 흡수하여 투명해지면 기름에 튀깁니다.



▶저렴하면서도 위생과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간편한 닭튀김. 한번 튀긴 후 재차 다시 튀기면 훨씬 바삭한 닭튀김이 됩니다. 먹다 남은 튀김을 에어 후라이기에 넣어 데우면 처음과 같은 맛이 됩니다.

## 11차 여성불자 108인 명단

1	강경자	경제	서울	IF 페이스 디자인 원장	55	신숨이	자원봉사	경기	회사원
2	강라현	자원봉사	서울	진) 간호사	56	신현주	교계단체	서울	(사)우리는선우 사무국장
3	강손주	교육연구	경기	안산진흥초등학교 수석교사	57	안수연	교육연구	강원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4	강인자	교육연구	경기	진) 한가람중학교장	58	안지영	문화예술	경기	프리랜서(미술 전시기획, 경영)
5	강지안	포교신행	강원	강원지원 봉사부 회원	59	우미래	경제	경북	우현특은 대표
6	공명희	포교신행	경기	분당 영덕여고 운영위원장	60	유윤희	문화예술	시애틀	세계리뷰협회 부회장
7	구윤임	교육연구	경기	국제 포교사	61	유한나	문화예술	서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학예연구사
8	권미선	사회단체	서울	아이클생협이사장	62	유화영	보건의료	서울	한인사
9	권미혁	정치행정	경기	개인정보보호협회 상임 부회장	63	유희순	자원봉사	서울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전통자주 주임강사
10	권숙교	법률	서울	김앤장 고문	64	윤선애	문화예술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대표
11	권영순	문화예술	서울	태극권 사범	65	윤자현	문화예술	경기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강사
12	권정미	교육연구	서울	전 송극여고 교사	66	윤효진	언론출판	경기	도서출판 민족사 디자이너, 기획
13	김 연	정치행정	충남	한국여성외정 충남 아카데미 원장	67	이문숙	교육연구	경기	신백현중학교 교장
14	김경란	사회단체	서울	티하우스 덕은공가 대표	68	이시구	문화예술	서울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
15	김경옥	교계단체	경기	수원 전산여고 교장	69	이예지	언론출판	서울	프리랜서 기자
16	김명옥	포교신행	서울	한국방송문예협회 위원	70	이은경	교육연구	경기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교감
17	김민지	경제	서울	(주)마인드디자인 대표	71	이재화	정치행정	대구	대구시의회 시의원
18	김부성	교육연구	서울	고려대 명예교수	72	이정숙	문화예술	대구	음식디자이너 대구지부장
19	김분희	정치행정	서울	(주)메시인터내셔널 명예회장	73	이주희	자원봉사	경기	판교바른터 공인중개사
20	김세라	교계단체	서울	세리컬퍼티 대표	74	이지은	포교신행	서울	케세이퍼시픽 차장
21	김수영	포교신행	경기	봉선사 신도회봉사	75	이지희	포교신행	경북	진)허그맘 모래놀이상담사
22	김수향	교육연구	경북	위덕대 유아교육과 교수	76	이진형	자원봉사	경기	헤어디자이너
23	김숙경	자원봉사	경기	연꽃마을 봉사자	77	이해남	포교신행	서울	진)상해한글학교 설립자
24	김순영	문화예술	서울	노그릇가리현희 대표	78	이해옥	문화예술	서울	대한민국 미술협회회원
25	김순자	보건의료	서울	무량감로회 의료팀	79	이현숙	포교신행	경기	경동대 부교수
26	김애기	포교신행	강원	강원지원 회원	80	이현자	문화예술	서울	아정민화연구소운영
27	김옥배	보건의료	서울	윤호병원 간호교장	81	이혜원	문화예술	서울	금속공예가
28	김용란	보건의료	서울	김안과 병원 원장	82	이화선	포교신행	서울	선림사 무애원 봉사
29	김윤숙	문화예술	경기	(재)명원다도 예절문화원 강사	83	이효선	사회단체	대구	꿈애소리 교육협회 대표
30	김재란	교육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강의 교수	84	임나경	문화예술	서울	진)송옥스튜디오 대표
31	김현미	포교신행	서울	(주)컷코 마스터	85	임시연	교육연구	서울	만다라심리연구소 소장
32	김현정	포교신행	강원	강원지원 봉사위원장	86	정순자	자원봉사	서울	보문사 신도회장
33	남현	사회단체	세종	성덕효성원 원장	87	정은진	경제	경기	판교 바른터 대표
34	남혜경	사회단체	서울	부디스트코칭, 시니어라이프코치	88	정인향	문화예술	서울	서예가, 민화작가
35	도명옥	자원봉사	경기	삼성생명 설계사	89	정정숙	자원봉사	서울	(사)우리는 선우 이사
36	문지연	언론출판	서울	금강신문 기자	90	정철재	문화예술	서울	도서출판 삼한 대표
37	민정은	자원봉사	경기	진)중학교 교사	91	정현주	문화예술	경북	한국미술협회 이사
38	박경현	사회단체	서울	수원 여성이전화, 공동대표	92	조민기	문화예술	경기	프리랜스 작가, 칼럼니스트
39	박미옥	자원봉사	대구	군위 제2석굴암 봉사자	93	조수성	교육연구	서울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40	박선영	사회단체	서울	이주민의 벗 대표	94	주경남	교계단체	부산	미술심리상담사
41	박소정	문화예술	서울	한국외국어대 인도어과 재학생	95	채진영	교육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2	박시형	언론출판	서울	(주)뽕앤피커스 회장	96	최수영	포교신행	경기	안양 예절원 강사
43	박신자	포교신행	서울	우리는 선우 후원자	97	최순애	사회단체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
44	박혜옥	포교신행	경기	한국노인상담연구소 소장	98	최순희	포교신행	대구	동화사 봉황봉사단 위원
45	배명자	문화예술	대구	다도강사	99	최한아	경제	서울	레이저 블렌더 대표
46	백남열	자원봉사	경기	자유여행가	100	취 환	사회단체	서울	한중문화우호협회 회장
47	서고은	경제	서울	삼성SDS 그룹장	101	테사 워 (Theresa Wong)	문화예술	홍콩	광고기획회사 부사장
48	서예석	교육연구	서울	바른보육경영연구소 대표	102	티나(Tina)	경제	홍콩	메이크업비즈니스
49	서창숙	자원봉사	서울	분식센터 운영	103	한경애	포교신행	뉴욕	뉴욕 원자사 부회장
50	서혜선	교육연구	서울	대진대학교 교수	104	한성자	교육연구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족실록 영문번역위원
51	석주윤	문화예술	서울	주) 에코 숲 대표	105	함양자	보건의료	서울	무량감로회 의료팀
52	손유림	교육연구	울산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	106	홍양주	교계단체	서울	한국불교연구구원구도회 부회장
53	송은주	포교신행	서울	봉선사 경진반	107	홍의경	포교신행	서울	수행공동체 연공취기 회원
54	솔자워 닉(Sulja Warnick)	교계단체	워싱턴	KWA 대한여성협회 창립, 명예이사	108	황은복	포교신행	서울	위즈덤합창단 단원

## 사무국 소식

### ○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

10월 12일 본원 창립 23주년 기념식과 11차 108인 회 선정식 프로그램, 1월 8일 제6회 여성불자108인의 날 기념식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의결하였다. 남인도, 스리랑카 해외 사찰순례로 12월 운영위원회를 11월 30일에 앞당겨 개최하여 창립 기념식 행사 평가와 지층 보증금 환불에 대해 의결하였다.



### ○ 창립 23주년 기념식과 제11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

본원은 창립 23주년 기념식 및 11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을 참석한 내외빈 200여 명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여법하게 마쳤다. 이현정 2차 108인이 진행을 맡았고 구윤임(교육연구 분야), 윤효진(언론출판 분야) 선정 소감 발표가 있었다.



### ○ 금강반아바라밀경 300일 기도 회향과 400일 기도 입재

금강경 기도 300일 회향이 12월 26~27일 1박 2일로 선림사에서 있었다. 기도 동참자 중 이기향 원장 포함 6인이 참배하고 이어 400일 기도 주제를 논의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칠정례와 천수경에 이어 금강경 기도를 하기로 하였다. 금강경 기도는 2022년부터 총 700일을 이어오고 있다. 보우법사는 본원을 위한 관음시식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는 유정, 무정 원훈들에게 불교의 법문을 직접 알려주고 불보살을 청하여 법식(法食)을 베푸는 의식이다. 보우법사는 풍족한 상을 차리고 원만스님, 현등스님이 여법하게 의식을 진

행하였다.

한편 이영주 7차 108인은 정진희 3차 108인 차수 장에게 부탁하여 불단에 올릴 조화를 만들어 선림사에 보시하였다. 동참자는 기도 후 매일 1천원씩을 모아 지혜장학회를 후원하기로 하여 23주년 기념식에서 전달하였다.



### ○ 정수기, 고급 전기밥솥 그리고 쌀 후원

임순덕 5차 108인은 정수기 구입비를 후원하여 11월 본원 '카페108'에 정수기가 설치되었다. 이영호 3차 108인은 고급 압력밥솥을 기증해 주었다. 김순철 6차 108인은 여성광장 개원 후 쌀을 두 차례나 후원하여 강의 후 수강생들과 함께 공양을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정수기 구입 월납분 1년치를 후원하였다.



### ○ 남인도·스리랑카 해외 사찰순례

본원 회원 18인과, 회원 권유로 동행한 16인은 12월 7-19일까지 11박 13일 동안 혜충스님과 함께 남인도와 스리랑카 순례를 다녀왔다.

고문 혜충스님께서 차안에서는 물론 순례 포인트 곳곳에서 지극한 기도와 만세 삼창(불교여성개발원, 부처님 나라 인도·스리랑카)을 외쳤다. 특히 이번 순례에서 남인도 문드곳 티벳빌리지 라피사원에 16명이 1만 원씩 모아 10년 간 전기세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2024년 운영 계획

1월		2월		3월	
4 목	108인회 임원회의	1 목	108인회 차수 임원회의(10시) 개발원운영회의(14시)	4~25 월	명상리더십센터<차와선3>1강~4강/14시
8 월	신년회_강제르 린보체 초청법회 제6회 여성불자108인의날	15 목	(사)지혜 이사회(11시) 개발원 이사회(14시)	7 목	108인회 차수 임원회의(14시)
11 목	개발원 운영회의	16 금	인본주의 심리학과 놀이치료(10:30)/1강	8 금	인본주의 심리학과 놀이치료(10:30)/3강
12 금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수련회	23 금	인본주의 심리학과 놀이치료(10:30)/2강 정기총회	14 목	개발원 운영회의(14시)
15 월	명상리더십<차와선2>11강(14시)	15 금	인본주의 심리학과 놀이치료(10:30)/4강 지혜아카데미(14시)/1강	15 금	인본주의 심리학과 놀이치료(10:30)/5강
22 월	명상리더십<차와선2>12강(14시)	22 금	인본주의 심리학과 놀이치료(10:30)/5강	30 토	11차108인 환영 워크숍 양평 코바코/(10시)
4월		5월		6월	
1~29 월	명상리더십센터<차와선3>5강~9강/14시	2 목	108인회 차수 임원회의(14시)	5 수	108인회 차수 임원회의(14시)
4 목	108인회 차수 임원회의(14시)	9 목	개발원운영회의(14시)	13 목	개발원운영회의(14시)
3~7 수	불교박람회 개최 (3일 D.P. 4~7일 참가)	13~27 월	명상리더십센터<차와선3>10강~12강/14시	21 금	지혜아카데미(14시)/4강
9 화	700일기도 회향	17 금	지혜아카데미(14시)/3강	27 목	역사문화답사(10시)/3회
11 목	개발원운영회의(14시)	23 목	역사문화답사(10시)2회		
19 금	지혜아카데미(14시)/2강	24~25 금 토	바자		
24 수	여성불자108인회 춘계 사찰순례				
27 목	역사문화답사(10시)/1회				
7월		8월		9월	
4 목	108인회 차수 임원회의(14시)	1 목	108인회 차수 임원회의 (14시)	5 목	108인회 차수 임원회의 (14시)
11 목	(사)지혜, 개발원 임시 이사회 (14시)	8 목	개발원운영회의(14시)	12 목	개발원운영회의(14시)
19 금	지혜아카데미(14시)/5강			20 금	지혜아카데미(14시)/6강
				26 목	역사문화답사(10시)/4회
10월		11월		12월	
2 수	108인회 차수 임원회의(14시)	7 목	108인회 차수 임원회의(14시)	5 목	108인회 차수 임원회의(14시)
10 목	개발원운영회의(14시)	14 목	개발원운영회의(14시)	12 목	개발원운영회의(14시)
18 금	지혜아카데미(14시)/7강	15 금	지혜아카데미(14시)/8강	20 금	지혜아카데미(14시)/9강
23 수	여성불자108인회 사찰순례(템플스테이)	22 금	창립24주년 기념식		
26 목	역사문화답사(10시)/5회				
27 일	불교르네상스의꿈III				
매주 월 사무국회의(11시)		매주 화 라인댄스(14시), 위즈덤합창단 정기연습(15시)			
매월 4주(5주) 월 고봉중고 정기법회(14시)		매월 둘째주 일 행복가족센터 정기법회(10시)			
영108 가족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6,9월 진행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하기관 센터 소식

### ○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회장 남동현, 6차 108인)

10월 5일, 11월 2일, 11월 30일, 임원회의와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다. 10월 말에 11차 108인 추천 마감에 대하여 점검하고, 9월 사찰순례 평가를 하였다. 11차 108인 선정식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배치와 행사 전반의 역할 분담을 논의하였다.



### ○ 5차 108인(차수장 노인자)

11월 1일, 5차 108인 회원 9명이 김인숙 고문 재단 사무실을 방문하고 불교여성광장 108카페에 들러 이기향 원장과 차담을 가졌다.



### ○ 교정교회센터(센터장 윤덕심, 9차 108인)

매월 네 번째 일요일 오후 2시, 고봉중고등학교 불교반 법당을 방문하여 불교반 학생들에게 불교 이야기와 간식을 제공하였다. 고봉중고등학교 봉사는 윤덕심 센터장, 양현정 9차 108인, 사무실 이수연 팀장이 봉사하고 있다.



### ○ 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성연, 10차 108인)

12월 15일, 한부모자조모임 좋은벗(리더 사기순)은 정례모임 회원끼리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경복궁을 방문하여 경복궁 전문 해설사와 함께 구석구석 고궁을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불교여성광장에서 각자 음식을 조금씩 사온 것을 펼쳐서 점심을 대체했다. 좋은벗 정례모임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사기순 리더의 넉넉한 품성과 그에 호응하는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더욱 활기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 ○ 건강밥상지킴센터(센터장 최혜경, 2차 108인)

10월 2일, 친환경 재료 16가지를 넣은 맛간장을 만들어 회원과 일반 불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떡국떡, 가래떡, 토종꿀, 호두, 유자차 등의 질 좋은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 산하기관 센터 소식

### ○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김영희, 9차 108인)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강좌 <차와선 2>을 진행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김영희 센터장의 다도에 대해 30분 강의를 하고 이어서 김홍근 교수 강의를 한다. 차와선은 종강 2회를 앞두고 있다.



### ○ 불교여성연구소(소장 김진, 2차 108인)

11월 06일, 제례시연을 여성광장 2층 지혜실에서 했다. 공모사업 수행의 일환인 '발원문쓰기'에 한 주제를 진행한 것이다. 김진 소장을 비롯해 계미향, 오기남, 김혜령 연구위원과 이수연 연구교육팀장이 참석했다. 지난 7~8월 2회에 걸쳐 실시한 발원문 워크숍에서 정리한 발원문 자료집 발간을 진행하고 있다.



### ○ 생명존중운동본부(본부장 이순재, 8차 108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러 청운동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 ○ 다문화행복가족센터(센터장 노인자, 5차 108인)

11월 12일, 여성광장 2층 지혜실에서 정기법회를 개최하였다. 부처님 일생에 대한 회원들의 강의 요청에 따라 불광사 불광법회에서 강의를 해온 최혜경 건강밥상지킴센터 센터장이 특강을 했다. 최 센터장은 법회 참석한 다문화가족 모두에게 카레로



대중공양을 보시하였다.

12월 3일 송년모임 법회는 이정호 부원장 인연으로 영국 런던 연화사 지수스님을 모시고 했다. 법회에는 센터 가족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슴 뭉클한 법석이 마련되었다. 송년 모임 후 서대문 홍제동에 있는 청진

## 산하기관 센터 소식

사(김진 2차108인) 법당을 참배하고 다과를 나누었다.

### ○ 위즈덤합창단(단장 황경자, 8차 108인)

11월 24일,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3주년 기념식 오프닝 무대에 총지중 단원들의 찬조출연이 있었다. 한편 이날은 서울숲 갤러리강당에서 열린 사인사색행사에 참여하여 무대를 빛냈다. 12월 21일, 김양희 지휘자와 송년모임을 가져 2024년에도 더욱 활기차게 나아가기를 발원하였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층 자비실에서 김옥경 7차 108인의 지도로 라인댄스를 연습하고, 오후 3시에 찬불가 정기 연습을 한다. 합창단 단원을 모집중이며 관심있는 분들은 010-6216-8647로 연락하면 된다.



### ○ 역사문화답사(해설사 안영, 10차 108인)

10월 26일,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의미로 새롭게 선보인 역사문화답사 5회의 마지막 답사를 한양도성인 흥인지문~혜화문 그리고 무주상 보시 길상사(대원각)을 순례하였다. 참석자 21인은 서울에 수십년을 살아도 와보지 못한 곳이라며 "오래된 서울, 가까운 한양"답사 주제를 실감한 하루였다. 소박하지만 맛은 일품인 천원의 보시금을 내고 먹은 길상사 비빔밥에 감탄하며 참석자들은 내년에도 불교여성개발원의 역사문화답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요청하였다.



### ○ 지혜아카데미(대표 정진희, 3차 108인)

10월 20일, 제8강 하수경 강사는 미술관산책 프로그램으로 20여 명이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장욱진 회고전'을 관람했다.

장욱진 화가는 생전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승화한 작가로서 팔상도, 업경대, 열반, 가족, 부인 진진묘의 그림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감상하며 참석자들은 차담을 통해 '왜 나는 이 그림이 좋은지'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 산하기관 센터 소식

11월 17일, 제9강 김선옥 강사는 '시의 세계' 주제로 한국의 명시를 뽑아 돌아가면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고 느낌을 나누었다. 시집 『꽃잡』(사유수 출간)을 수강생 모두에게 선물하였다.

12월 22일, 제10강 정진희 지혜아카데미 대표는 꽃명상, 크리스마스 테이블 장식에 대해 강의하고 수강생 모두 송년모임 시간을 가졌다.



### ○대상관계심리학(실장 이정호, 2차 108인)

9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7강 동안 『울타리와 공간』 교재를 수강생이 한 단락씩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 강사가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상관계 심리학 수업을 마쳤다. 종강을 맞아 수강생 각자 한가지씩 음식을 준비하여 풍성한 종강 파티를 했다. 이어 12월 11, 15,



18일 3일 동안 총 9시간 미술치료 실습 강좌를 하였다.

### ○날란다 독서모임(반장 조명숙, 8차 108인)

독서모임 시작 후 여덟 번째 책 『다키니파워』를 마치고 아홉 번째 읽을 책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3월초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3기 조명숙 반장이 2024년에도 봉사해 주기로 했다.



###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원장 양현정, 9차 108인)

2023. 11. 25일 부모 참여수업으로 코딩 수업과 뮤지컬 영어수업을 함께 하면서 부모님들이 더 즐거워 하는 모습에 아이들의 즐거움은 곧 어른들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새삼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 회원동정

### ○김주현(8차 108인)

11월 4일 신대승네트워크가 주최한 11월 어울림 법석이 마련한 쉽게 이해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강의하였다. 강의를 끝난 후 수강생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 ○김해자(1차 108인)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구봉산문화회관에서 국가무형문화재 107호 누비장 김해자의 누비옷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올해 8회째 개최한 전시회는 (사)누비문화연구원(원장 김해자)과 대구섬유박물관의 협업 전시로 누비 파우치, 누비 복주머니 만들기 체험 교육도 진행하였다. 전시회 출품 자료집을 본원에 기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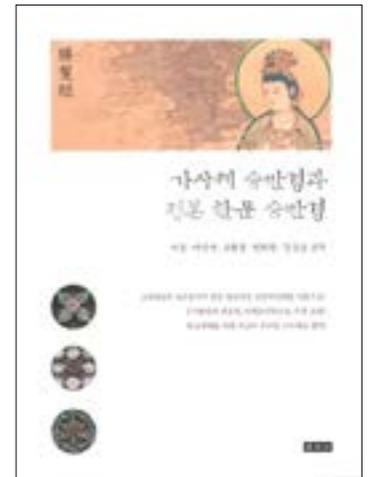
### ○우인순(8차 108인)

연말연시를 맞아 한국에 있는 티벳 절 법당에 쌀 10kg 5포대와 인천 부평깡시장 독거노인 어르신들 점심 식사하는 곳에 빵 100개를 보시하였다.



### ○이인자(2차 108인)

10월 초에 지운스님과 5분의 도반들이 함께 『기사체 승만경과 정본 한문 승만경』을 공저하였다. 이인자 고문은 2008년부터 본원의 승만경연구회 공부모임을 열어 5년 동안 1년에 2회 총 10기 수강생을 배출하고, 승만보살의 10대 원력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지침서로 『승만사자후경』을 출간한 적이 있다.



### ○이현숙(7차 108인)

12월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의장표창을 수상하였다. 경기 김포시협의회 간사로 봉사하고 있다.

회원동정



○ 전영숙 (8차 108인)

「불교평론 (2023 가을호. 281-299)」에 “불경언해와 한글 보급에 공헌한 여성 불자들”이란 논문을 실어 귀한 역사적 자료가 되었다.



○ 최명숙 (5차 108인)

10월 말, 『사람이 사람에게로 가 서면』, 『비틀거리며 걸던 길 위에서 만난 그대』 2권의 시집을 발간하였다.



최명숙 회원은 도서출판 도반의 편집주간을 맡고 있으며 시를 통해 구도 행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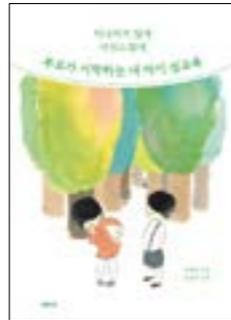
○ 이영호 (3차 108인)

11월 23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3차 108인) 센터장과 이기향 원장이 불교여성광장 108차 페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다양하게 변해가는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일에 양쪽 기관이 협력하기 위함이다.

○ 백경임 (1차 108인)

12월에 『부모가 시작하는 내 아이 성교육』 개정판을 샘터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지나치지 않게 자연스럽게 아기에게 올바른 애정을 주는 방법에서부터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꼭 필요한 성교육을 소개하는 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 황영선 (5차 108인)

12월에 『월간 금강』에 내 인생의 절 음식 사찰음식에 기고하였다. 황영선회원은 “사찰음식은 ‘몸으로 받고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고 우주의 에너지가 담겨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육바라밀’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으로 사찰음식은 내가 이번 생에 접한 가장 큰 인연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는 메시지를 남겼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3.10.1~2023.12.31)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값이 감사드립니다.

<b>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b>		남해경(11차)	1,000,000	정진원(7차)	1,000,000	양경윤(5차)	30,000	서창숙(11차)	100,000
강영자	1,200,000	리영자(1차)	1,000,000	조명하(8차)	1,000,000	오지연(4차)	30,000	안지영(11차)	120,000
김숙애	1,200,000	문명하(5차)	1,000,000	조영우(7차)	1,000,000	오현경(9차)	20,000	유경자(4차)	100,000
노인자	600,000	박강자(6차)	1,000,000	조재란(10차)	1,000,000	유진희(6차)	30,000	유혜정	200,000
손재현	1,200,000	박경자(5차)	1,000,000	조정현(8차)	1,000,000	윤정선(6차)	30,000	윤선애(11차)	120,000
원유자	400,000	박근연(1차)	1,000,000	조희금(2차)	1,000,000	윤희영(8차)	30,000	이주희(11차)	120,000
이정호	1,000,000	박명혜(2차)	1,000,000	최경분(9차)	1,000,000	이기향(1차)	90,000	이해옥(11차)	120,000
정영수	1,200,000	박정애(8차)	1,000,000	최나영(10차)	1,000,000	이수진(10차)	30,000	임나경(11차)	120,000
피상순	3,000,000	박중균(6차)	1,000,000	최영옥(9차)	1,000,000	이영희(8차)	30,000	정은진(11차)	120,000
황외숙	300,000	박찬재(9차)	1,000,000	최윤정(3차)	1,000,000	이은희(9차)	30,000	조수성(11차)	120,000
		백경임(1차)	1,000,000	최해숙(4차)	1,000,000	이중용(조명숙)	30,000	한성자(11차)	120,000
		사기순(4차)	1,000,000	추미실(3차)	1,000,000	이현영(9차)	30,000		
		김선옥	1,200,000	서혜경(1차)	1,000,000	취환(11차)	1,000,000	이혜숙(9차)	30,000
		김영희	1,200,000	성민선(3차)	1,000,000	하봉자(10차)	1,000,000	임정애(6차)	30,000
		김외숙	1,200,000	손미영(7차)	1,000,000	홍원숙(8차)	1,000,000	전영숙(8차)	30,000
		김형인	1,200,000	손미원(9차)	1,000,000	홍정애(3차)	1,000,000	정은희(6차)	30,000
		양경윤	1,200,000	손인희(9차)	1,000,000	조은경(10차)	1,000,000	정지원(7차)	30,000
		이기향	500,000	송현주(4차)	1,000,000	박기옥(10차)	1,000,000	정혜정(9차)	30,000
		이순재	1,200,000	신용현(9차)	1,000,000	이천희(10차)	1,000,000	조경숙(6차)	20,000
		이영주	1,200,000	안 영(10차)	1,000,000			조귀자(9차)	30,000
		정은희	1,200,000	안애원(7차)	1,000,000	<b>여성불자108인회 회비 (CMS)</b>		조은수(2차)	30,000
		형난옥	900,000	양숙자(5차)	1,000,000	강명희(6차)	60,000	조정숙(6차)	30,000
				양채화(7차)	1,000,000	강옥란(7차)	30,000	조현숙(10차)	30,000
				어순아(9차)	1,000,000	강옥희(7차)	30,000	주찬옥(6차)	30,000
				엄희원(10차)	1,000,000	강희경(10차)	30,000	최복란(8차)	30,000
				오용옥(3차)	1,000,000	계미향(8차)	30,000	최은희(9차_부산)	30,000
				권지혜(7차)	1,000,000	고은자(10차)	30,000	최은희(9차_제주)	30,000
				김경량(10차)	1,000,000	김선연(9차)	30,000	최희영(7차)	30,000
				김귀순(7차)	1,000,000	김양희(6차)	30,000	한정화(9차)	20,000
				김미연(10차)	1,000,000	김영미(6차)	30,000	한주영(10차)	30,000
				김미원(9차)	1,000,000	김영숙(6차)	30,000	한채화(9차)	30,000
				김복순(2차)	1,000,000	김옥주(7차)	30,000	한혜원(7차)	30,000
				김선옥(6차)	1,000,000	김청옥(7차)	20,000	함양자(11차)	10,000
				김숙자(3차)	1,000,000	남동현(6차)	30,000	홍경희(2차)	40,000
				김순남(10차)	1,000,000	남동화(3차)	30,000	황남채(1차)	30,000
				김승목(3차)	1,000,000	노희순(3차)	15,000	황명자(6차)	30,000
				김양식(1차)	1,000,000	문보경(6차)	30,000	황선화(5차)	30,000
				김영순(3차)	1,000,000	박귀원(8차)	30,000	황수남(9차)	30,000
				김옥숙(10차)	1,000,000	박정희(6차)	30,000	황치석(10차)	30,000
				김외숙(2차)	1,000,000	배순자(6차)	30,000		
				김용란(11차)	1,000,000	배정선(9차)	30,000	<b>여성불자108인 회비 (온라인)</b>	
				김용숙(7차)	1,000,000	변경이(8차)	40,000	권경미(11차)	120,000
				김윤옥(7차)	1,000,000	서은숙(6차)	30,000	김경란(11차)	120,000
				김은희(4차)	1,000,000	손인애(9차)	40,000	김명옥(11차)	120,000
				김일명(7차)	1,000,000	송중옥(9차)	30,000	김부성(11차)	120,000
				김주현(8차)	1,000,000	송주의(9차)	30,000	김분희(11차)	120,000
				김지영(5차)	1,000,000	송혜진(8차)	30,000	김순영(11차)	120,000
				김진여심(5차)	1,000,000	신재영(6차)	30,000	김현인(9차)	120,000
				김현지(7차)	1,000,000	정명자(8차)	570,000	박미옥(11차)	120,000
				남상민(1차)	1,000,000	정미령(8차)	1,000,000	서예석(11차)	120,000
						안인자(9차)	30,000		
								<b>회원회비</b>	
								강희출	15,000
								권은량	30,000
								김연희	30,000
								김영희	30,000
								김정희	30,000
								김희엽	15,000
								김현숙	30,000
								나경윤	15,000
								도인희	30,000
								민선정	30,000
								박말희	15,000
								박문숙	30,000
								박복순	15,000
								박영재	40,000
								박지선	30,000
								박홍우	30,000
								박희상	30,000
								서혜정	30,000
								선문스님	30,000
								송만순	60,000
								신미옥	15,000
								신은영(자우스님)	30,000
								안미경	30,000
								안석자	30,000
								안정옥	30,000
								양현정(김범효)	300,000
								연명순	30,000
								왕민영	30,000
								원유자	30,000
								유명숙	30,000
								이강희	15,000
								이명순	300,000
								이미선	90,000
								이송화	30,000
								이숙자	30,000
								이승자	30,000
								이시구	90,000

#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3.10.1~2023.12.31)

이영재 30,000	홍경희 444,000	이영미(6차) 4,000,000	<b>개발원 창립기념일 행사</b> 김만옥 30,000 김애주 500,000 김옥숙 30,000 김외숙 300,000 김진 100,000 남동현 500,000 노숙령 1,000,000 리영자(1차) 300,000 박종덕 200,000 서우림 100,000 성민선 100,000 성영란 50,000 정경연 1,000,000 정대련 1,000,000 정진희(지혜장학금) 1,000,000 최경분 100,000 양정희 100,000 원유자 100,000 윤정로 100,000 이기향 6,613,600 이숙자 100,000 이영미 100,000 이윤희 100,000 이인자 100,000 이정호 500,000 이추경 50,000 이화불교학생회동문회 100,000 일법스님 200,000 임순덕 300,000 장선숙 300,000 전영숙 50,000 정이연 20,000 조명숙 100,000 황수경 100,000 김재란 100,000 선림사 2,300,000 성영란 100,000 김혜령 100,000 정재선 100,000 이인자 100,000 유자현 100,000 김옥경 100,000 양정희 100,000 이윤희 100,000 박기옥 100,000	남동현 100,000		
이윤구 30,000	<b>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b> 귀빈여행사(양애자) 360,000 김순철 50,000 김애주 4,000,000 김연수(5차) 300,000 김옥숙(7차) 1,080,000 김인숙 2,684,250 김정희(9차) 100,000 김중숙 30,000 민경란(9차) 1,080,000 양경윤 5,000,000 이광호 1,080,000 이순재 50,000 이인자고문 900,000 이정호(2차) 3,200,000 정대련(6차) 560,000 황규잠(정진희권선) 90,000 <b>불교여성광장건립 (불교르네상스의꿈2)</b> <b>약정 잔액</b> 강손주(원유자 권선) 1,080,000 권수형(4차) 360,000 김연수 680,000 김애주고문 1,000,000 김용숙(7차) 1,080,000 김인숙고문 62,315,750 김정희(9차) 900,000 김중숙 290,000 김형숙(정진희 권선) 620,000 류인숙(5차) 420,000 민경란(9차) 4,320,000 박순(1차) 9,000,000 박원자(5차) 450,000 배영숙(10차) 1,080,000 손미영(7차) 2,892,000 손미원(9차) 80,000 송옥순(정진희 권선) 720,000 신병욱(신계정미스) 1,000,000 신수영(정진희 권선) 230,000 양경윤(5차) 4,800,000 유명숙(최혜경 권선) 80,000 유옥준(정진희 권선) 780,000 이시구 1,080,000	이영미(7차) 6,680,000		<b>기타후원금 온라인 (다문화봉사단/교정교회센터/우바이예찬/재소자영치금/기타)</b> 귀빈여행사(양애자) 60,000 이기향 417,800 이영미 100,000 이정호 1,000,000 조정숙 23,000 한림대봉사클럽 3,800,000 황수경 270,000 <b>위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b> 김경란 30,000 김옥경 90,000 송은주 60,000 신지울 170,000 이호우 30,000 정대련 200,000 황은복 90,000 <b>고등동복지관 후원</b> 권기란 40,000 김연성 60,000 김혜미 30,000 김희정 1,400,000 박영숙 90,000 윤정은 30,000 이희주 90,000 전유빈 30,000 전주옥 60,000 정별 30,000 한경숙 30,000 한정미 300,000 황경생 10,000 황화성 100,000	이정호 100,000	
이윤희 30,000		이정호 100,000			이철호(원유자 권선) 1,080,000	이정호 100,000
이재영(정원일) 30,000		이정호 100,000			임주연(정진희 권선) 720,000	박종덕 100,000
이재영 30,000		이정호 100,000			조정숙사무국장 432,000	노숙령 100,000
이정애 30,000		이정호 100,000			최정경(이영미 권선) 1,080,000	황수경 100,000
이정호 30,000		이정호 100,000			행난옥(6차) 7,080,000	안기순 100,000
이종열 40,000		이정호 100,000			홍경희(2차) 432,000	김숙애 200,000
이진수(무관스님) 30,000		이정호 100,000			황규잠(정진희 권선) 660,000	
이화선 30,000		이정호 100,000			<b>기타후원금 온라인 (다문화봉사단/교정교회센터/우바이예찬/재소자영치금/기타)</b>	
임무순 120,000		이정호 100,000	귀빈여행사(양애자) 60,000			
임정순 15,000	이정호 100,000	이기향 417,800				
임주연 30,000	이정호 100,000	이영미 100,000				
장길수 30,000	이정호 100,000	이정호 1,000,000				
장영선 30,000	이정호 100,000	조정숙 23,000				
장윤실 30,000	이정호 100,000	한림대봉사클럽 3,800,000				
전미옥 30,000	이정호 100,000	황수경 270,000				
정명모 30,000	이정호 100,000	<b>위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b>				
정숙인 90,000	이정호 100,000	김경란 30,000				
정주현 30,000	이정호 100,000	김옥경 90,000				
정희자 30,000	이정호 100,000	송은주 60,000				
조귀자 30,000	이정호 100,000	신지울 170,000				
조문경 20,000	이정호 100,000	이호우 30,000				
조여경 30,000	이정호 100,000	정대련 200,000				
조우상 30,000	이정호 100,000	황은복 90,000				
조정숙 20,000	이정호 100,000	<b>고등동복지관 후원</b>				
진승연 30,000	이정호 100,000	권기란 40,000				
진여스님 90,000	이정호 100,000	김연성 60,000				
최비안 30,000	이정호 100,000	김혜미 30,000				
최순진 40,000	이정호 100,000	김희정 1,400,000				
최혜경 300,000	이정호 100,000	박영숙 90,000				
하양자 30,000	이정호 100,000	윤정은 30,000				
한승우 40,000	이정호 100,000	이희주 90,000				
허난영 30,000	이정호 100,000	전유빈 30,000				
허영숙 30,000	이정호 100,000	전주옥 60,000				
행난옥 30,000	이정호 100,000	정별 30,000				
해진스님(배영철) 20,000	이정호 100,000	한경숙 30,000				
홍숙기(진여스님) 30,000	이정호 100,000	한정미 300,000				
홍점례 15,000	이정호 100,000	황경생 10,000				
황유진 30,000	이정호 100,000	황화성 100,000				
<b>불교여성광장건립 (CMS)</b> 720,000						
김형숙 90,000						
류인숙 90,000						
박원자 450,000						
손미영 360,000						
송옥순 90,000						
신수영 30,000						
신유준 90,000						
임주연 90,000						

○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과 회원가입 안내]**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정회원  
 ● 매달 1만원 이상 회비 납부인  
 ● 활동 센터 1개 이상 선택의 기회  
 ● 교육과 프로그램 할인(회원활동 6개월 이상)  
 ● 원광디지털대학 등록금 할인  
 ● <우바이예찬> 정기발송  
 ○ 가입문의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2

**[후원 안내]**  
 ○ 불교여성개발원 국민은행 023501-04-031123  
 예금주: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국민은행 023501-04-095228  
 예금주: (사)지혜로운여성  
 ○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금계좌 농협 301-0085-6744-91  
 국민은행 023537-04-003040  
 예금주: (사)지혜로운여성 (불교여성회관)

\*CMS(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하실 분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